

2025 국민이 함께하는 저작권 글 공모전(시)

제목	침묵의 숲에서
<p> 자기 등지에 몰래 낳은 알을 키우느라 오목눈이는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한다. 부화된 새끼들의 목청에 뒤섞인 빠꾸기의 불협화음에 숲이 침묵하는 동안 바람도 없는 등지에서 곧게 떨어져 흙바닥에 파문을 남기고 흩어진 어린 새의 영혼은 누가 구원할 것인가 </p> <p> 참나무 줄기에 스민 씨앗 하나 두꺼운 껍질을 뚫고 뿌리내리는 날 숲은 못 본 체 등을 돌리고 겨우살이 무성해지는 동안 파리하게 메마른 참나무 나이테에 패인 깊은 상처는 어느 숲이 치유하나 </p> <p> 숲 속에 울려 퍼지는 부화한 빠꾸기가 내뿜는 잔인한 노래 참나무 줄기를 뚫고 나온 황금빛 열매 오목눈이 등지 위로 날아오르는 빠꾸기가 나 보고 들으라고 당당하게 속삭인다. </p> <p> 너는 기생(寄生) 없이 살 수 있겠니? </p>	